

# 평생 봉사만 해 온 수녀님들,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 법 규정 따라 정년 퇴임 후 거주 못해 '조비오 신부 숙원' 수녀원 건립, 부지 매입 후 코로나에 '제동'

소화자매원에서 평생 봉사만 해 온 수녀들이 정년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게 됐지만 갈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소화자매원이 사회복지법인인 탓에 정년이 되면 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소화자매원 측에 따르면 현재 소화자매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녀들은 총 18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70대 이상이 돼 더 이상 복지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소화자매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습대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평생을 5·18과 광주 시민들의 편에 섰던 조비오 신부 주도로 설립됐다. 조 신부와 함께 소화자매원의 수녀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광주지역 나환자·결핵환자·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소화자매원의 역사는 매우 깊다. 1956년 '무등원'으로 시작해 광주지역내 결핵환자 등을 돌봤다. 1966년 '무등자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꾸준히 지역내 장애 가족들의 자활을 도왔다. 하지만 1977년 정부의 식량지원 중단 조치로 80여 명의 장애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자활과 생계 유지

가 힘들게 돼 무등 자활원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조 신부는 사비를 털어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여자 환우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중환자실(28평)을 짓는데 지원했고, 성 빈체시오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조 신부는 소화 공동체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했고, 전국 각지에서 은인들의 손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1981년 현재의 소화자매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자매원은 1984년까지 미인가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80여 명의 장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뿐, 돼지 움막을 개조한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정부 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985년 3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평생을 소화자매원에서 지역내 여성장애인의 재활과 삶을 돕고 있는 수녀들의 발목을 잡았다.

다수의 수녀들은 이제 70-80대가 되어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게 됐으나 수도 생활을 위한 독립된 수녀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수녀들은 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소화자매원에서 거주할 수 없고,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미리 간파했던 조비오 신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사제단과 수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 수녀원과 사제관 신축 자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며 "나 이제 돈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비오 신부 선종 전 마지막 숙원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런 조 신부의 숙원을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이어받았다.

지난해부터 수녀원 건축의 시급성에 따라 광주 대교구 내 성당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발생해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대 신부는 "저희가 짓게 될 새 수녀원은 성녀 소화 데레사의 영성을 사랑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면서 "평생을 봉사에 매진한 수녀들이 남은 일생에 수녀의 신분으로 수도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3선' 장휘국 광주교육감 공약 73% 완성

### "대부분 정상 추진...올해 속도 올려 약속 지킬 것"

3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선거 공약 완성을 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현재 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이 3차례 선거에 나서면서 내건 공약 175개 중 129개가 현재 완료됐다. 공약 완료율은 73.7%다.

우선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확대 운영과 인사제도 개선,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등 4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며 70% 이상의 높은 완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공약은 지난해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2023년 개교 목표로 선운저구에 특수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광주형 기적의 높이 도서관 건립(추진율 33.3%)과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 지원센터 전환(43.8%), 교육연구정보원 이설 및 AI교육센터 설립(45.0%), 광주학생문화예술클럽 센터 설립(55.0%), 학생 놀이·휴식 시간 보장(59.7%) 등은 공약 추진율이 60% 미만으로 미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미진한 공약이 완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완성률이 70% 이상이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며 "공약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최대한 속도를 끌어 올려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걷는족족 행복속속 1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장수천 근린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복지관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 동아리 '걷는족족 행복속속' 발대식을 갖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전남대 등 10개 국·사립대 호남권 대학 협력 네트워크 '출범'

전남대학교가 대학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대는 최근 호남권 10개 국·사립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호남권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침에 의해 국립대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사립대도 참여해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전남대·목포대 등 전남·

북 국립대 7개교와 조선대 등 사립대 3개교가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대학들은 올해 회장으로 전남대를 선출하고, 각 대학 사업 총괄책임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와 사업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전남대주관의 공동교육 혁신센터 운영을 비롯해 ▲동·서 대학 교류·화합 프로그램 ▲진로·진학 두드림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교육대학교 공동교육협력 네트워크 ▲광양만권대학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유했다.

이준용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은 "호남권역 국·사립대학이 꾸준한 교류, 협력으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교육청, 교육기관 최초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

### 중기중앙회지역본부·전남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 다짐

전남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코로나19 지속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남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업체 제품 우선 구매 및 홍보·교육 ▲전남업체 구매물 향상을 위한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제품 생산·판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편리한 구매 방식 제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가 되어 모두에게 '희망'으로 피어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